

다니엘서 - 번호 30

두려움의 시간

Jeff Pippenger

2023-12-25

벨사살이 신비한 글씨를 보고 느낀 두려움은 그의 죽음과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종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땅의 왕들을 사로잡게 되는 예언의 역사상의 시점도 가리킨다. 그들의 두려움은 이슬람의 "동풍"에 의해 생겨난다. 그들의 두려움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아서, 점점 더 빠르게 찾아오는 점증하는 고통을 드러낸다. 그 두려움은 벨사살의 잔치의 "한 시간"에 시작되지만, 그 최초의 도래는 2001년 9월 11일이었다. 그때부터 십사만 사천이 봉인되는 기간 동안 그 바람들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의 손에서 바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에스겔이 지적하는 두로에 대한 애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파괴된 두로와 같은 성이 어디 있으랴?"라는 예언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두로를 규정한다.

다시스의 배들이 네 장터에서 너를 노래하였고, 너는 충만하게 되어 바다 한가운데서 크게 영화롭게 되었다. 네 노 젓는 자들이 너를 큰 물로 데려왔고,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부서뜨렸다. 네 재물과 네 물품과 네 상품과, 네 뱃사람들과 네 조타수들과, 네 틈을 메우는 자들과 네 상품을 취급하는 자들과, 네 안에 있는 네 모든 군사들과 네 한가운데 있는 네 모든 무리가, 네 멸망의 날에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질 것이다. 네 조타수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주변 지역들이 흔들릴 것이다. 노를 잡는 모든 자들과 뱃사람들과 바다의 모든 조타수들이 그들의 배에서 내려 땅 위에 설 것이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목소리를 높여 심히 슬피 부르짖고, 머리 위에 티끌을 던지며, 재 가운데서 뒹굴 것이다. 그들이 너로 인하여 머리를 아주 밀고,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며, 마음의 쓰라림과 심한 통곡으로 너를 위하여 울 것이다. 그들이 곡하면서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바다 한가운데서 파멸된 자 같은 두로와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리라. 네 상품이 바다에서 나갈 때에 네가 많은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고, 네 재물과 네 상품의 많음으로 땅의 왕들을 부하게 하였도다. 그러나 네가 물 깊은 데서 바다에 의해 부서질 때에, 네 상품과 네 한가운데 있는 네 모든 무리가 떨어질 것이다. 모든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빛이 변하리라. 민족들 가운데의 상인들이 너를 향하여 휘파람으로 조롱할 것이며, 너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27:25-36.

두로는 땅의 상인들이 비통하게 통곡하며 "두로와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성, 혹은 왕국이다. 그들은 성이 바다에서 무너지는 그 "때"에 그렇게 한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두로의 음녀, 곧 로마의 음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그 심판이 한 시간에 또 하루에 임하는 그 큰 성으로 지목된다. 그녀는 통곡하는 왕들과 상인들의 입에서 그 예언적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 성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기근이며, 그녀는 불로 완전히 사르게 되리라.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땅의 왕들 가운데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다, 슬프다, 그 큰 성 바벨론아, 그 강대한 성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땅의 상인들도 그녀 때문에 울고 애통하리니, 다시는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기 때문이다. 금과 은과 보석들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모든 티인 목재와 각종 상아 그릇과 지극히 귀한 나무로 된 각종 그릇과 놋과 철과 대리석으로 된 것들과, 또 계피와 향품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가축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 네 영혼이 욕심내던 열매들이 네게서 떠났고, 맛있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도 네게서 떠나 버렸으니, 너는 그것들을 다시는 도무지 찾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의 상인들, 곧 그녀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자들이 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다, 슬프다, 그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주홍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던 자여! 이 같은 큰 부요함이 한 시간에 사라졌도다" 하리라. 모든 선장들과 배에 탄 무리와 선원들과 바다로 무역하는 모든 자들도 멀리 서서,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으랴!" 하며, 자기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고 울며 통곡하며 외쳐 말하기를, "슬프다, 슬프다, 그 큰 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들이 네 값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거늘, 한 시간에 네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요한계시록 18:8-19.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봉인 해제되는 일에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포함된다. 그 기별은 에스겔 37장의 두 번째 예언으로, 사흘 반 동안 거리에 누워 있던 죽은 마른 뼈들을 강한 군대로 살아나게 한다. 그 기별은 주께서 일요일 준수 강제로 인해 미국에 집행 심판을 내리시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이슬람이라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 심판은 큰 지진의 '시간'에 임하며, 그 '시간'은 벨사살의 벽에 글씨가 나타났던 '시간'이기도 하다. 그 글씨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두려움은 이슬람의 '동풍'에 의해 지구의 경제 구조가 무너질 때 모든 왕들과 상인들을 사로잡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슬람은 남쪽의 방치된 낮은 '성벽'을 통해 벨사살의 왕국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왕들과 상인들이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며 묻는 그 "성" 또는 왕국은 바로 두로의 음녀의 왕국인데, 그 음녀는 그때 노래를 부르며 바로 그 왕들과 음행하고 있다. 모든 선지자들은 세상의 끝에 관해 말하며 서로 일치하므로, 에스겔의 상인들은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상인들과 동일하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들은 큰 성과 지구의 금융 체제가 무너질 때 "alas, alas" 하고 세 번 탄식한다. 그 구절에서 "alas"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세 번 번역된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한데, 거기에서는 다른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직 나팔을 불지 아니한 세 천사의 다른 나팔 소리들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요한계시록 8:13.

왕들과 상인들은 "아아, 아아", 곧 "화로다, 화로다"라는 말로 세계 경제의 파괴를 탄식하고 있으며, 이 "화"는 이슬람을 상징한다. 벽에 글씨가 나타날 때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을 사로잡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그분의 섭리적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도주, 곧 일요일 준수 강제를 마시는 자들에게 그분의 집행적 심판을 가져오실 때, 이슬람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지구의 경제 구조가 파괴됨으로써 생기는

두려움이다. 이 진리는 "두로"의 "창녀"에 대한 이사야 23장의 "경고"의 주제이다.

두로에 관한 경고. 다시스의 배들아, 울부짖으라.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도록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음이라. 깃딤 땅으로부터 그 일이 그들에게 드러났도다. 섬의 거민들아, 잠잠하라. 바다를 건너다니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희를 풍성하게 하였도다. 큰 물들로 말미암아 시홀의 씨, 곧 강의 수확이 그녀의 수입이 되었고, 그녀는 열국의 장터가 되었도다. 시돈아, 수치를 당할지어다. 바다가 말하였음이니, 참으로 바다의 세력이 이르되, 나는 해산하지도 아니하였고 자식도 낳지 아니하였으며, 청년을 기르지도 아니하였고 처녀들을 키우지도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이집트에 관한 소식과 같이, 두로에 관한 소식으로 그들이 크게 아파하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섬의 거민들아, 울부짖으라. 이것이 너희의 즐거워하던 성읍이냐? 그 옛날부터 이어온 오랜 도시가 아니냐? 그녀의 발이 그녀를 멀리 떠돌게 하리라. 왕관을 씌우는 성, 그 상인들이 방백들이요 그 무역상들이 땅의 존귀한 자들인 두로를 대적하여, 누가 이 계락을 세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를 계획하셨으니, 모든 영화의 교만을 더럽히시고,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멸시 가운데 두려 하심이라. 다시스의 딸아, 네 땅을 강 같이 지나가라. 더는 매는 줄이 없도다. 그가 바다 위에 손을 펴시고 나라들을 흔드셨도다. 여호와께서 상업의 성에 명령하여, 그 견고한 곳들을 멸하라 하셨도다. 또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시돈의 딸아, 네가 다시는 즐거워하지 못하리라.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이 백성은 본래 없었으나, 앗수르가 광야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세웠느니라. 그들이 그 망대를 세우고 그 궁전들을 세웠으나, 그가 그것을 폐허로 만들었도다. 다시스의 배들아, 울부짖으라. 너희의 힘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그 날에 두로가 칠십 년 동안, 한 왕의 날수대로 잊혀지리라. 칠십 년이 끝나면 두로가 창녀같이 노래하리라. 수금을 잡고 성읍을 두루 다니라, 잊혀진 창녀여. 달콤한 가락을 연주하고 많은 노래를 불러, 네가 기억되게 하라. 칠십 년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찾아오시리니, 그녀가 다시 그 샅으로 돌아가, 지면 위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음행하리라. 그녀의 상품과 그 샅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것을 쌓아 두거나 저장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상품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배불리 먹게 하며, 오래 입을 옷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23:1-18.

칠십 년, 곧 '한 왕의 날들'과 같은 기간은 바벨론 왕국으로 대표된다. 이는 왕은 곧 왕국이며, 역사적 바벨론이 칠십 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바벨론의 칠십 년은 벨사살의 연회장 벽에 글씨가 나타난 그 '시간'에 끝났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벽'을 통해 들어온 권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그동안 느부갓네살의 악대는 음악을 연주했으며, 두로의 음녀는 달콤한 선율을 노래했고, 배도한 이스라엘은 춤추며 절했다.

그러자 관련된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는 하나님께서 "두로를 대적하여 계획하셨고" "모든 영광의 교만을 더럽히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멸시받게 하려는" "뜻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때"의 "큰 지진"으로 "열국을 흔드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상인"의 나라를 대적하여 "그 요새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벽 위의 불같은 글자들에 대한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벨사살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때"에 왕들과 상인들은 탐구를 시작했다. 벨사살의 죽음은 막 일어나려 하고 있었지만, 그 시점에는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신비한

글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글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지혜자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진리를 위조한 성경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신비한 글은 봉인된 책의 환상과도 같다.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하였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지도 못하였다. 이에 벨사살 왕은 크게 번민하였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다. 그때 왕과 귀족들의 말소리를 듣고 왕비가 연회장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이 왕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얼굴빛도 변하지 마옵소서. 왕의 나라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왕의 부친 시대에 신들의 지혜와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고,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이는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함과 어려운 말들을 밝힘과 의혹을 풀어내는 능력이 그 다니엘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 왕이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셨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가 그 해석을 보여 드릴 것이니이다. 이에 다니엘이 왕 앞에 불러오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유다의 포로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내 아버지 왕이 유다 땅에서 데려온 자가 아니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고,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네게서 발견된다 하더라. 이제 지혜자들과 점성가들을 내 앞에 불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일의 해석을 보여 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네게 대하여 듣건대, 너는 해석을 밝히며 의혹을 풀 수 있다 하더라. 이제 네가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네 목에 금 사슬을 걸어 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 5:8-16.

궁중의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의 왕비였고, 그녀는 벽에 쓰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왕국에는 교회(예언적으로 여자는 교회이다)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궁전에는 그들 모두보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벨사살의 조부의 왕비였다. 이 위급한 때에 그녀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부디 왕의 생각이 왕을 괴롭게 하지 마옵시고, 왕의 안색도 변하지 마옵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나이다. 왕의 아버지의 시대에 신들의 지혜와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으므로, 왕 느부갓네살, 곧 왕의 아버지—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께서—그를 박수, 점성가, 갈대아 사람들,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께 하소서, 그가 그 해석을 보이리이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불러왔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권위를 드러내려 애쓰며 벨사살 왕이 말하였다. '네가 유다의 포로 된 자손 가운데, 내 아버지인 왕이 유다 땅에서 데려온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들었노니,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고,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네게 있다 하더라.... 이제 네가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줄 수 있다면, 주홍색 옷을 입히고 네 목에 금 사슬을 걸어 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은 왕의 위용에 압도되지도 않았고 그의 말에 당황하거나 위축되지도 않았다. 그는 대답하였다. '당신의 예물은 당신이 가지시고, 상은 다른 이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왕께 그 글을 읽어 드리고 그 뜻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으로 뜻이 굳어지자, 그는 왕위에서 폐위되었고 그의 영광은 그에게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였고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마셨으며,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의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호흡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시며 왕의 모든 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기록된 글이니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이러하니라: 메네: 하나님이 네 나라를 헤아려 그것을 끝내셨다. 데겔: 네가 저울에 달려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페레스: 네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졌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왕의 죄를 그의 눈앞에 드러내 보이며, 그가 배웠어야 했으나 배우지 못한 교훈들을 보여 주었다. 벨사살은 자기에게 그토록 중대한 사건들을 유념하지 않았다. 그는 조부의 역사를 제대로 읽어 내지 못했다. 진리를 아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가 배우고 행동으로 옮겼어야 할 실천적 교훈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행로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갈대아 왕이 베푼 교만의 잔치로서는 마지막이었다. 사람의 패역을 오래 참으시는 분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이다. 벨사살은 그를 왕으로 높이신 분을 크게 욕되게 했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거두어졌다. 왕과 귀족들이 흥청거림의 절정에 있을 때, 페르시아인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려 무방비 상태의 도성 안으로 진군했다. 벨사살과 귀족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그릇으로 마시며 은과 금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고레스와 그의 군사들은 궁전 성벽 아래에 서 있었다. '그 밤에,' 기록은 말한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하였다.' 성경의 메아리, 1898년 5월 2일.

위기 한가운데서 여왕(교회)은 "Future for America"를 식별해 줄 수 있는 출처가 있음을 알아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금 자기 분깃에 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드러낸 기치의 증언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 주어지고, 그는 일요일 법령 위기의 "시간"에 그 기치를 대표하는 자들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국가 당국 앞에 불려가게 될 것이라는 진리의 맥락을 보탠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줄 것이요, ... 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마태복음 10:17, 18, R. V. 박해는 빛을 퍼뜨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를 세상의 유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왜곡되어 전해져 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앙에 관하여 제기된 거짓 고소를 그들이 들어 왔다. 종종 그들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신앙 때문에 재판정에 끌려온 이들이 하는 증언이다. 심문 가운데 이들에게는 대답하라고 요구되고, 그들의

재판관들은 제시된 증언을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너희가 말할 것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종들의 마음을 비추실 때, 진리는 그 신적 능력과 귀중함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일어나 제자들을 고소하고 억압할 것이다. 그러나 손실과 고난,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일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은 그들의 신적 모범의 온유함을 드러내야 한다. 이리하여 사탄의 대리자들과 그리스도의 대표들 사이의 대조가 드러날 것이다. 구주께서 관원들과 백성들 앞에서 높여지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354.

세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어떤 선물에도 관심이 없었고 자기가 할 말을 미리 연습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간단히 벽에 나타난 '일곱 때'의 해석을 제시했다.

다음 기사에서 벨사살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불성실한 자들은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동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이끌 만한 성격을 갖추지 못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그들을 고용하신 분의 눈앞에 자신들이 있음을 느껴야 한다. 벨사살의 불경한 연회를 지켜보셨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관들, 상인의 회계실, 개인 작업장에도 계시며, 피 없는 손은 그 신성모독한 왕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기록했던 것처럼 당신의 태만을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기록하고 있다. 벨사살에 대한 정죄는 불의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너는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하도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당신에 대한 정죄도 같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229.